산약초에 빠지다

맥문동
(麥門冬)

■ 식물명 : 맥문동(麥門冬)
■ 학명 :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Ker-Gawler(소엽맥문동)
■ 과명 : 백합과
■ 별명(이명, 속명) : 승상맥동, 맥동, 겨우살이풀, 문동(門冬), 양구(羊), 불사약(不死藥)
■ 생약명 : 맥문동(麥門冬)
■ 분포지 : 충남, 경남, 전남 일원
■ 번식법 : 포기나누기, 종자파종
■ 꽃 피는 시기 : 6~9월
■ 수확기 : 반드시 겨울을 넘기고 봄 3~4월에 채취
■ 꽃말 : 흑진주
■ 용도 : 관상용, 약용
■ 약용 : 당뇨병, 이뇨, 심장염, 해열, 감기, 강장, 소염, 거담, 강심, 진해, 항균

식물의 생김새와 특징

맥문동(麥門冬)은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짧고 굵은 뿌리를 가졌다.

뿌리를 말린 모양이 마치 껍질이 두꺼운 보리 같다고 하여 보리 맥(麥)자를 붙여서 맥문동이라고 부르는데 수염뿌리는 가늘고 길며 곳곳에 비대한 작은 괴근(塊根, 덩이뿌리)이 나와 있다.

잎은 밑둥치의 뿌리 있는 곳에서 뭉쳐나며 가을이 되면 잎 사이에서 꽃줄기가 곧게 올라 그 끝부분 꽃송이에 담자색의 꽃이 많이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서 구형이며 흑색으로 성숙한다.

여름에는 꽃이 좋고 가을에는 구슬과 같은 열매를 볼 수 있으므로 정원에 심어 관상용으로 이용하며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쓰는데 긴 타원형으로 연한 황백색을 띠고 투명하게 보인다.

맥문동은 중국이 원산으로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남의 산과 들에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자생하고 농가에서는 적당히 습기가 있는 사양토에서 재배하고 있다.

밀양이 예로부터 주산지이며 최근에는 충남 청양과 서천 지방에서도 재배한다.

맥문동은 완화(緩和) 자양강장제로 진해, 거담, 해열에 사용하며 또 폐결핵, 천식 등을 진정시키고 신체 허약에 원기를 돋우고 열성병(熱性病)으로 입이 마르는 구건증(口乾症) 등에 적용하고 아울러 최유제(催乳劑)의 보조약으로 통유(通乳)작용을 가지고 있다.

재배법

맥문동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양은 물빠짐이 좋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 pH6.0~6.8의 모래참흙이나 양토(壤土)가 적합하다.

만일, 물빠짐이 나쁜 토양이나 점질토(粘質土)에 심으면 덩이뿌리의 비대생육도 늦어지지만 비대해진 덩이뿌리가 썩는 경우도 많아 수량이 감소한다.

또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덩이뿌리의 비대생장이 좋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다.

연작과 과도한 화학비료의 단용 재배는 피하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종자파종법과 포기나누기법이 있으나 농가에서는 보통 포기나누기법을 많이 쓴다.

▲ **파종** : 10~11월에 채종한 종자를 표피 제거 후 일주일가량 음지에서 건조시켰다가 노천 매장한 후, 봄에 묘판에 파종한다. 대량으로 번식할 때는 종자번식이 가능하나 발아 기간이 길고 모판에서 1년 동안 비배관리(거름을 잘 뿌려 토지를 걸게 하여 식물을 가꿈) 후 본토에 아주심기함으로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 **포기나누기** : 번식할 포기는 발육이 좋고 비대 건실한 괴근(덩이뿌리)이 많이 붙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수확할 때 괴근을 따고 좋은 포기만을 모아서 뿌리의 길이 2~3㎝ 정도 남기고 자르며 지상부의 잎도 잘라 버리고 일단 다발로 흙 속에 저장하였다가 본밭에 심으며 심을 때 포기는 4~6촉이 되도록 포기를 나누어서 심되 심는 간격은 90㎝ 두둑에 3줄로 심는데 가로 23㎝, 세로 25㎝ 간격이다.

▲ **정식(아주심기)** : 90~120㎝의 두둑을 만들고 20~25㎝ 간격으로 3줄로 심는데 4~6촉 정도로 포기나누기를 한 것을 활착이 잘되도록 적당한 깊이로 심고 흙을 덮는다.

▲ **시비** : 밑거름은 완숙된 퇴비, 계분, 인산, 칼리 등을 적당히 혼합하여 밭 갈기 전에 골고루 뿌려 전층시비(全層施肥)가 되도록 한다.

▲ **관리법** : 정식 후 수시로 김매기를 해주며 작업 시에는 두둑 위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얇은 천이나 신문지, 짚, 건초 덮기로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현재 식재 방법은 검은 비닐을 두둑에 씌워서 식재하고 이랑 사이는 부직포를 씌워 주면 김매기 일손이 줄고 수분이 보습된다.

병충해 예방법과 방제

맥문동을 재배할 시, 간혹 진딧물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외의 병충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딧물은 친환경 천연 살충제를 이용하여 구충해주어야 한다.

약초의 효능과 한방 및 민간요법

◆ **사용 부위**

맥문동은 괴근(塊根), 즉 덩이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

◆ **채취와 가공**

봄에 덩이줄기를 채취하여 깨끗이 씻은 후 말린다. 뿌리의 크기에 따라서 대맥, 중맥, 소맥으로 구분하여 저장을 하되 대맥은 심(목부)을 제거한 후 말린다.

◆ **성분**

맥문동에는 오피오포고닌(ophiopogonin) A, B, C, D 등이 함유되어 있고 베타시토스테롤(β-sitosterol), 스티그마스테롤(stigmasterol)도 함유되어 있다.

◆ **약효**

맥문동은 특히 당뇨병에 좋으며 그 밖에 소염, 이뇨, 항균, 해열, 강장, 진해, 거담제 및 강심제로 쓰인다.

◆ **용법**

덩이뿌리 10g에 물 700㎖를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반 이하로 달인 액을 나누어 아침저녁으로 식후에 약 2~3주 정도 복용한다.

저자 소개

김행중

남부대학교 한방제약개발학과 졸업

1974.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입사
1986.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취임. (현재 재임중)
1993. 전남 농민교육원 약초 재배 강사 위촉
1995. 전라남도 농업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1996. 농림부장관 표창
1997.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
2001. 사단법인 우리약초살리기운동본부 이사 선임
2003.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 수상(유통가공 부문)
2005.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약용작물 교육 강사 위촉
2007. 전라남도 농업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2008. 전국 생약농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취임
2009. 국민포장 수훈